

지시 화행에 대한 유아의 응대 방법*

장경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른 응대 방법과 그 발달
- III. 요구 수용 여부에 따른 응대 방법과 그 발달
- IV. 관점에 따른 응대의 방법과 그 발달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유아가 지시 화행에 대하여 응대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응대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응대 방법들을 몇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의 언어를 관찰해 보면, 유아의 응대 방법들은 지시 화행과의 상호작용의 정도, 상대방 요구의 수용 여부, 응대에서 유아들이 취하는 응대의 관점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시 화행에 대한 유아의 응대 방법들을 유형화한 다음에 각각의 유형별로 응대 방법을 개관한다. 그리고 유아의 응대 방법에 나타난 발달상의 특징을 고찰하기로 한다.

유아의 언어 습득과 발달은 음운, 통사, 어휘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의미 화용론적 관점의 접근도 이루어

* 이 논문은 2005년 한양대학교 교내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화용론적 관점의 하나인 화행 영역에서는 진술, 질문, 요청 등의 요구 화행이 중점적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요구 화행에 대한 응대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유아와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보다는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 따라서 유아들은 진술, 질문, 지시 등의 화행 가운데, 지시 화행에 가장 빈번히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의사소통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유아의 지시 화행에 대한 응대는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자료들은 조사 시작 시점에 24개월~41개월에 속한 아동 8명의 언어를 10개월 동안 녹음한 것이다.¹⁾ 엄마와 아동이 집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하면서 나눈 대화를 1주일에 1회 60분씩 녹음하였다. 아동별로 1개월 단위로 4개의 녹음 파일이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 2개씩을 분석 대상 자료로 삼았다.²⁾ 대상 파일은 <표 1>과 같다.³⁾

<표 1> 조사 대상자 정보와 파일 수

아동 구분	성 별	개 월	파일수
A	여	24개월~32개월	18개
B	여	25개월~32개월	15개
C	남	24개월~32개월	16개
D	남	24개월~32개월	18개
E	여	33개월~41개월	18개
F	여	33개월~41개월	17개
G	남	33개월~41개월	17개
H	남	34개월~41개월	16개
합 계			135개

- 1) 이 자료 조사는 총 8명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시작 시점에서 24~34개월에 속한 아동들은 6개월 단위로 일정하게 구성하였다. 24개월부터 시작한 것은 문장 단위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24개월부터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녹음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1개월에 2개의 파일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녹음과 관련된 정보는 녹음일지로 기록하였다. 유아의 발화가 파악하기 힘든 경우는 녹음 시에 아동의 불완전한 발화를 엄마가 즉시 반복하도록 하였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녹음하였다.
- 3) 자료의 균형성을 위하여 남녀가 동일한 분포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녹음 자료의 전시는 유아와 부모 등 대화 참여자 모두의 발화를 대상으로 하였고, 파일당 모두 2,000어절 정도로 동일한 크기의 파일로 구성하였다.

II.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른 응대 방법과 그 발달

1.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른 응대 수행의 방법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지시 회행에 대하여 유아가 응대를 수행할 때는 지시 회행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지닌 경우가 있고, 상호작용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경우가 있으며,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응대도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의 정도에 따라 유아의 응대 회행을 상호작용적 응대와 비상호작용적 응대, 준상호작용적 응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호작용적인 응대 수행의 방법

상대방의 지시 회행에 대하여 충분한 상호작용을 지닌 응대 방법에는 수락 응대와 거절의 응대 방법이 있다. 우리말에는 수락이나 거절의 응대를 수행하는 언어 표현이 존재하며, 이들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적인 상호작용성이 높은 응대를 수행할 수 있다. 상호작용의 면에서 보면, 수락의 응대와 거절의 응대는 모두 상호작용성이 높은 응대이다.

수락이나 거절의 응대는 유아들의 언어에서도 관찰된다.

- (1) 엄마 : ○○이 발 조심해. 그~ 밟다가 발 다칠라.
아동 : 네! 발 조심하게요(조심할게요). (32개월 여아)
- (2) 엄마 : 얼른 와서 밥 먹어-.

아동 : 치! 밥 안 먹을 거야. (41개월 여아)

(1)과 (2)에서 아동은 선행 화자인 엄마가 의도하는 지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언어를 사용하여 수락과 거절의 응대를 수행하고 있다. (1)~(2)에서 유아가 수행하는 응대는 엄마의 지시 화행과 분명한 상호작용성을 지니고 있다.

2) 비상호작용적인 응대 수행의 방법

유아의 응대 발화가 상대방의 지시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응대가 비상호작용적인 응대들인데, 그 예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3) 엄마 : ○○아! 아가 아프게 하지 마.

아동 : 엄마 나 졸려 근데. (40개월 여아)

(4) 엄마 : 알았어, 주께(줄게). 몇 개 먹었는지 얘기해 봐.

아동 : 아 뒤(뒤). (24개월 여아)

(3)에서 아동은 ‘아가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엄마의 지시 내용과 관계 없이 ‘나 졸려’로 응대를 하고 있다. (4)에서는 ‘몇 개 먹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는 엄마의 지시에는 응대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은 이전의 주제와 관련하여 말을 하고 있다.

유아들의 비상호작용적인 응대에는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대방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4)와 같이 지시 화행과는 거리가 있는 이전의 주제와 관련하여 말하는 방법도 흔히 사용된다. 아동이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제로 꺼내는 경우도 있다.

유아들은 상대방의 지시를 듣고도 상대방에 대하여 적절한 응대를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부담 없이 새로운 화제를 꺼내면서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아의 비상호작용적 응대는 성인의 비상호작용적 응대와 그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성인의 경우는 비상호작용적 응대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대화 참여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호작용적인 응대 수행을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유아들이 부담을 느껴야 하는 비상호작용적인 응대를 아무런 부담도 없이 수행하는 것은, 유아들의 대화의 상호작용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데 그 까닭이 있다고 본다.⁴⁾ 유아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아동들에게서도 지시 화행 이외에 질문 등의 화행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을 홍옥자(1974 : 31~32)에서는 사회화된 언어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인 자기 중심적 언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되고 있다.⁵⁾

3) 준상호작용적인 응대 수행의 방법

유아들이 수행하는 응대에는 상대방의 지시에 대하여 충분한 응대는 되지 못하지만, 전혀 상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도 없는 응대들이 있다. 이러한 응대들이 준상호작용적 응대 범주에 속하는 응대들이다.

준상호작용적 응대는 아동이 상대방의 지시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명료한 언어적인 응대가 수행되지 않았단든지, 언어적인 응대는 발생하였지만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관찰 자료들을 보면, 상대방의 지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나 상대방이 지시한 행동 수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은 언어적인 응대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상대방의 지

4) 상대방의 지시 화행에는 응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화행간의 상호작용성을 유아단계 아동들은 아직 습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호작용적인 응대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대인관계의 갈등 등에 대한 지식도 아직 습득되지 않은 단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들은 부담없이 상대방의 지시를 무시하는 비상호작용적인 응대를 부담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5) 홍옥자(1974 : 32)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따르고 있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초등학교 1학년의 두 아동에서 각각, 43.8%, 31.2%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세의 어린이는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사회화된 언어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았다.

시에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

- (5) 엄마 : 자 엄마가 빼 주께(줄게). ○○이가 새로 껌 봐.
아동 : {아이가 구슬을 끼움.}
엄마 : 어 하나 끼웠어? (26개월 여아)
- (6) 엄마 : 아빠 운전하시느냐고 물어봐.
아동 : 운전해? (32개월 여아)

(5)에서 아동은 엄마의 지시에 따라 말없이 행동을 직접 수행하였고, (6)에서도 엄마가 지시한 언어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적인 응대가 결여된 응대는 상호작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지시와 그에 대한 응대 간의 상호작용, 즉 대화의 상호작용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지시화자가 요구하는 행동은 수행되었다고 하지만,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상호작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직접 행동 수행 방식의 응대는 아동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성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음의 (7)에서 아동은 질문 내용 가운데 일부를 확인하고 있고 (8)에서는 엄마가 지시하는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 (7) 엄마 : 발리 정리해. 처음부터 박스 안에다 다 집어넣어.
아동 : 뻘스?
- (8) 엄마 : 응. ○○아 이제 문 닫고 들어와. 춥다.
아동 : 왜-? (36개월 여아)

아동의 이러한 응대도 선행 화자의 발화를 성인과 같이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행동 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7)~(8)에서도 언어적인 응대는 발생하였지만, 상호작용성이 분명한 수락이나 거절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지시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응대이므로 준상호작용적인 응대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준상호작용적 응대 방법에는 상대방의 지시 발화 모방하기, 응대 대신 상대방 지칭하기 등의 방법도 있다.

(9) 엄마 : 두 마리 없어? 있었잖아- 아기염소 원래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어디 갔어? 그러면-, 그냥- 음~ ○○이가 막내염소 해.

아동 : 막내염소 해. (27개월 여자)

(10) 엄마 : 이걸루 만들면 돼-. 이리 와 이거 만들구. 이걸로 만들어 줄 게-, 이리 와-.

아동 : 엄마. (26개월 남아)

(11) 엄마 : 응, 너는 그쪽에서 터널 만들어. 엄마 이쪽에서 만들게.

아동 : 우띠따띠. (32개월 남아)

(9)에서 유아는 상대방의 지시 발화를 모방하며 응대하고 있다. (10)에서는 선행 화자의 지시 화행에 대하여 응대를 수행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부르고 있다. (11)에서도 응대는 발생하였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9)~(11)의 응대들이 지시 화자의 지시에 부응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성인의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부적절한 응대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도 아동이 아직까지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언어 능력을 지니지 못하였거나 행동 수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상호작용성이 충분하지 못한 응대이다.

2.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른 응대 능력의 발달

아동들의 상호작용적 응대 능력의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8명의 아동을 크게 24~32개월 아동(A아동, B아동, C아동, D아동)과 33개월~41개월 아동(E아동, F아동, G아동, H아동)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출현 양상을 보기로 한다.

1) 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양상

24~32개월 아동 집단과 33개월~41개월 아동 집단의 아동별 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양상을 정리해 보이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 24~32개월 아동의 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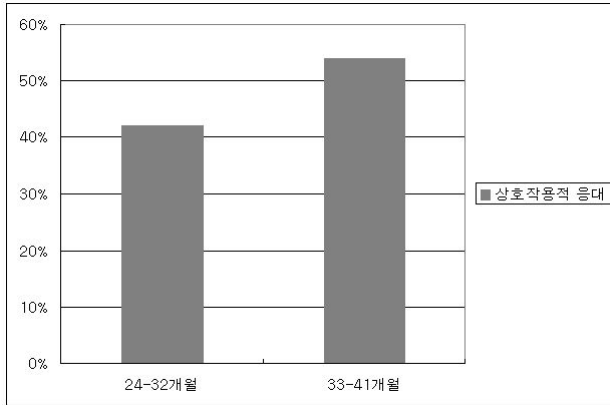
아동 개월	A		B		C		D		평균
	출현빈도 ⁶⁾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24	10 (22)	45%	0 (0)	0%	0 (3)	0%	2 (2)	100%	36%
A25	8 (12)	67%	5 (11)	45%	1 (3)	33%	5 (5)	100%	61%
A26	3 (20)	15%	2 (6)	33%	9 (32)	28%	0 (0)	0%	19%
A27	7 (18)	39%	4 (7)	57%	1 (3)	33%	5 (19)	26%	39%
A28	5 (10)	50%	8 (19)	42%	0 (0)	0%	0 (2)	0%	23%
A29	5 (7)	71%	11 (23)	48%	3 (3)	100%	0 (0)	0%	55%
A30	6 (6)	100%	8 (29)	28%	2 (4)	50%	2 (4)	50%	57%
A31	7 (7)	100%	11 (28)	39%	5 (12)	42%	3 (15)	20%	50%
A32	4 (6)	67%	1 (11)	9%	2 (9)	22%	4 (7)	57%	39%
합계	55 (108)	62%	50 (134)	34%	23 (69)	34%	21 (54)	39%	42%

<표 3> 33~41개월 아동의 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아동 개월	E		F		G		H		평균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33	6 (7)	86%	10 (15)	67%	14 (18)	78%	0 (0)	0%	58%
A34	3 (7)	43%	10 (21)	48%	9 (9)	100%	4 (10)	40%	58%
A35	3 (10)	30%	10 (18)	56%	11 (15)	73%	27 (48)	56%	54%
A36	4 (12)	33%	4 (4)	100%	10 (26)	38%	7 (18)	39%	53%
A37	3 (14)	21%	3 (6)	50%	7 (10)	70%	7 (17)	41%	46%
A38	1 (6)	17%	2 (2)	100%	14 (27)	52%	10 (19)	53%	55%
A39	5 (15)	33%	3 (10)	30%	10 (19)	53%	9 (10)	90%	51%
A40	9 (11)	82%	4 (5)	80%	14 (34)	41%	7 (17)	41%	61%
A41	4 (10)	40%	6 (23)	26%	5 (9)	56%	4 (5)	80%	50%
합계	38 (92)	43%	52 (104)	62%	94 (167)	62%	75 (144)	49%	54%

6) 괄호 안의 수치는 모든 응대 발화가 나타난 빈도를 나타냄. 이하 동일함.

위 <표 2>와 <표 3>에 의하면 아동들의 월령별 백분율은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24~31개월의 집단에서는, A아동의 경우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작용적 응대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지만, B아동의 경우에는 월령이 높아짐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인차가 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3~41개월의 집단에서는 개인별로도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24~31개월 집단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상호작용적 응대 비율의 평균을 그래프로 보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월령 집단별 상호작용적 응대 비율

아동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 는 하지만, 평균적 경향으로는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 월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호작용적 응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후 24~32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화에서는 상호작용적 응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2%로 나타난 반면, 생후 33~4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화에서는 54%에 해당하였다. 즉, 아동의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 상호작용적 응대가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7) 아동 개인별 월령에 따른 변화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은 지시에 대한 응대 발화의 출현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비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양상

다음은 비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의 월령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보이면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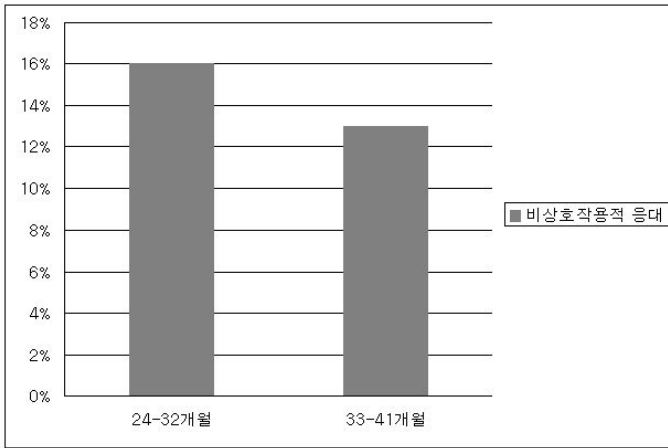
<표 4> 24~31개월 아동의 비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아동 개월	A		B		C		D		평균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24	3 (22)	14%	0 (0)	0%	0 (3)	0%	0 (2)	0%	3%
A25	2 (12)	17%	2 (11)	18%	0 (3)	0%	0 (5)	0%	9%
A26	(20)	0%	0 (6)	0%	8 (32)	25%	0 (0)	0%	6%
A27	2 (18)	11%	2 (7)	29%	1 (3)	33%	5 (19)	47%	30%
A28	(10)	0%	5 (19)	26%	0 (0)	0%	1 (2)	50%	19%
A29	1 (7)	14%	2 (23)	9%	0 (3)	0%	0 (0)	0%	6%
A30	(6)	0%	2 (29)	7%	1 (4)	25%	0 (4)	50%	20%
A31	(7)	0%	4 (28)	14%	1 (12)	8%	0 (15)	80%	26%
A32	1 (6)	17%	7 (11)	64%	0 (9)	0%	1 (7)	29%	27%
합계	9 (108)	8%	24 (134)	19%	11 (69)	10%	7 (54)	28%	16%

<표 5> 33~41개월 아동의 비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아동 개월	E		F		G		H		평균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33	0 (7)	0%	1 (15)	7%	2 (18)	11%	0 (0)	0%	4%
A34	2 (7)	29%	2 (21)	10%	0 (9)	0%	3 (10)	30%	17%
A35	0 (10)	0%	2 (18)	11%	1 (15)	7%	9 (48)	19%	9%
A36	0 (12)	0%	0 (4)	0%	5 (26)	19%	5 (18)	28%	12%
A37	3 (14)	21%	0 (6)	0%	3 (10)	30%	3 (17)	18%	17%
A38	2 (6)	33%	0 (2)	0%	7 (27)	26%	1 (19)	5%	16%
A39	3 (15)	20%	0 (10)	0%	3 (19)	16%	1 (10)	10%	11%
A40	1 (11)	9%	0 (5)	0%	5 (34)	15%	3 (17)	18%	10%
A41	1 (10)	10%	2 (23)	9%	4 (9)	44%	1 (5)	20%	21%
합계	12 (92)	14%	7 (104)	4%	30 (167)	19%	26 (144)	16%	13%

<표 4>와 <표 5>를 보면, 비상호작용적 응대도 두 집단 모두에서 상호작용적 응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이동별로도 특징적인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의 전체 평균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그림 2>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월령 집단별 비상호작용적 응대 비율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생후 24~32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화에서는 비상호작용적 응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6%로 나타난 반면, 생후 33~4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화에서는 13%로 나타났다. 즉,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 상호작용적 응대가 많아진 대신(<그림 1> 참조), 상대적으로 비상호작용적 응대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3) 준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양상

24~32개월 아동 집단과 33~41개월 아동 집단의 준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양상을 정리해 보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 24~32개월 아동의 준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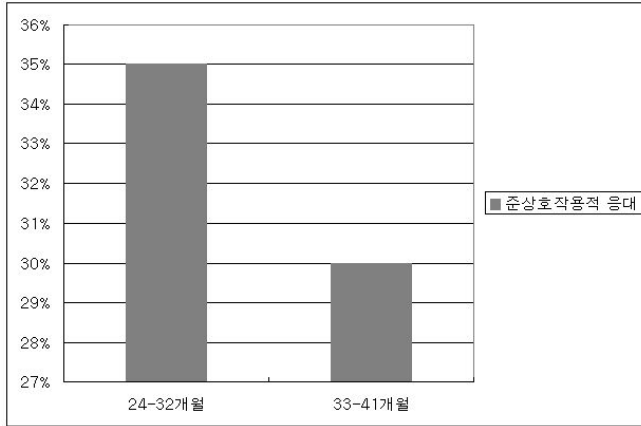
아동 개월	A		B		C		D		평균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24	9 (22)	41%	0 (0)	0%	3 (3)	100%	0 (2)	0%	35%
A25	2 (12)	17%	2 (11)	36%	2 (3)	67%	0 (5)	0%	30%
A26	17 (20)	85%	0 (6)	67%	15 (32)	47%	0 (0)	0%	50%
A27	9 (18)	50%	2 (7)	14%	1 (3)	33%	9 (19)	47%	36%
A28	5 (10)	50%	5 (19)	32%	0 (0)	0%	1 (2)	50%	33%
A29	1 (7)	14%	2 (23)	43%	0 (3)	0%	0 (0)	0%	14%
A30	0 (6)	0%	2 (29)	66%	1 (4)	25%	2 (4)	50%	35%
A31	0 (7)	0%	4 (28)	46%	6 (12)	50%	12 (15)	80%	44%
A32	1 (6)	17%	7 (11)	27%	7 (9)	78%	2 (7)	29%	38%
합계	44 (108)	30%	24 (134)	37%	35 (69)	44%	26 (54)	28%	35%

<표 7> 33~41개월 아동의 준상호작용적 응대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아동 개월	A		B		C		D		평균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33	1 (7)	14%	4 (15)	27%	2 (18)	11%	0 (0)	0%	13%
A34	2 (7)	29%	9 (21)	43%	0 (9)	0%	3 (10)	30%	25%
A35	7 (10)	70%	6 (18)	33%	3 (15)	20%	12 (48)	25%	37%
A36	8 (12)	67%	0 (4)	0%	11 (26)	42%	6 (18)	33%	36%
A37	8 (14)	57%	3 (6)	50%	0 (10)	0%	7 (17)	41%	37%
A38	3 (6)	50%	0 (2)	0%	6 (27)	22%	8 (19)	42%	29%
A39	7 (15)	47%	7 (10)	70%	6 (19)	32%	0 (10)	0%	37%
A40	1 (11)	9%	1 (5)	20%	15 (34)	44%	7 (17)	41%	29%
A41	5 (10)	50%	15 (23)	65%	0 (9)	0%	0 (5)	0%	29%
합계	42 (92)	44%	45 (104)	34%	43 (167)	19%	43 (144)	24%	30%

<표 6>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준상호작용적 응대도 아동의 월령에 따라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A아동의 경우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준상호작용적 응대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상호작용적 응대는 앞서 살펴본 비상호작용적 응대와 마찬가지로 월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월령 집단별 준상호작용적 응대 비율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생후 24~32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화에서는 준상호작용적 응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5%로 나타난 반면, 생후 33~4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화에서는 30%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월령이 높아지면 비상호작용적 응대와 마찬가지로 준상호적인 응대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Ⅲ. 요구 수용 여부에 따른 응대 방법과 그 발달

1. 요구 수용 여부에 따른 응대 수행의 방법

지시 화행은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화행이다. 지시화자의 요구를 응대 화자가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구를 수용하는 수락의 응대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거절의 응대로 대별된다.

1) 수락 응대 수행의 방법

수락의 응대에는 상호작용성이 높은 언어적인 수락 방법이 있고 준상호작용성을 지닌 직접 행동 수행의 응대가 있다. 언어적인 수락 응대는 행동을 수행하겠다는 응대 화자의 의도 표명을 기본으로 한다(장경화: 2002).

(12) 엄마 : ○○아 요고(이거) 똑같이 그려봐.

아동 : 네. (26개월 남아)

(13) 엄마 : 어, 아빠 찾아와.

아동 : 아빠 찾아올게. (32개월 여아)

(14) 엄마 : ○○이 책 보자 그래, 갖구 와 그럼.

아동 : 응 이거 이거- 이거 책 보 꺼다(볼 거다)-. (27개월 여아)

(12)~(14)에서는 간투사나 의도 표명의 형태를 지닌 발화를 사용하여 수락의 응대를 수행하고 있다. 행동 수행에 대한 의도 표명은 (15)에서와 같이 조건을 수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15) 엄마 : 이야기 들려쵸(들려줘)-.

아동 : 이자(의자)- 이다(의자) 이추른(있으면) 들려주께. (31개월 여아)

수락의 응대는 행동 수행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응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16)에서는 지시하는 행동에 대한 수행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16) 엄마 : 책 좀 읽어 줘. 엄마 들어보게

아동 : 이것 좀 먹고요. (39개월 여아)

(17) 엄마 : 문좀 열어줘. 열어주세요.

아동 : 알았뒤(알았어). (33개월 남아)

유아들은 성인들과 같이 언어적인 응대를 수행하지 않은 채, 직접 행

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응대를 수행한다. 앞의 상호작용성의 관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접 행동 수행의 응대는 언어적 수락에 비해 상호작용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지시 화자의 요구가 수용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직접 행동 수행의 응대도 확실한 수락의 응대이다.

유아들의 직접 행동 수행의 응대는 흔히 아동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행동에 관한 묘사나 수행한 결과를 진술하는 발화를 수반한다.

(18) 엄마 : 앉으세요.

아동 : 이어케(이렇게) 안으는(앉는) 거야. (32개월 여아)

(19) 엄마 : 아이구 어지러워요. 똑바로 붙여주세요.

아동 : 붙였다. (32개월 여아)

(18)은 직접 행동 수행의 응대인데, 자신이 수행중인 행위를 묘사하는 발화를 수반하였고, (19)에서는 행동을 수행한 결과 진술을 수반하고 있다.⁸⁾

2) 거절 응대 수행의 방법

거절의 응대를 수행하는 방법도 언어를 사용한 언어적인 거절 응대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20) 엄마 : 고만해(그만해)-. 이거 붙기 힘들어.

아동 : 뽕뽕, 뽕뽕. (27개월 남아)

거절에서도 직접 행동 수행 방식의 경우, 행동 묘사, 행위 결과 진술 등의 발화를 수반하는 응대가 흔히 발생한다. (20)에서 아동은 어머니가 금지하는 행동을 계속 수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결과적

8) 행동 묘사나 행동 결과 진술을 수반하는 응대는 아동들의 응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방식의 응대도 앞에서 논의한 상호작용의 관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대방의 지시에 대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수행했다는 성취감에 초점을 두는 응대 방식으로 상호작용성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단계에서 비롯된 응대로 해석할 수 있다.

으로 어머니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였고 이때의 응대는 거절의 응대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21) 엄마 : 꺼내 봐.

아동 : 아니, 안 꺼내 봐. (32개월 여아)

(21)에서는 지시 행동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거절을 언어적 표현으로 수행하고 있다.

성인 언어에서는 언어적인 응대의 경우, 거절의 응대에서도 수락과 동일하게 의도 표명의 형태인, ‘-래, -르거, -겠-’ 등이 쓰인다. 그러나 유아들의 거절 응대는 의도 표명이 아니라 주로 부정법에 의해 거절의 응대가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⁹⁾ 다음에서도 부정법에 의한 거절 응대를 볼 수 있다.

(22) 엄마 : ○○이가 읽어봐.

아동 : 아아. {어조: 거절하는 말투} (24개월 여아)

(23) 엄마 : 똑똑똑 해 봐-.

아동 : 아니야. (24개월 여아)

(24) 엄마 : 자, ○○ 연고 여겼다. 빨리 대 ○○.

아동 : 안 발라. (27개월 남아)

(22)에서는 ‘으, 아’와 같이 표출기능적 음성으로 자신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¹⁰⁾ (23)에서는 간투사 ‘아니야’나 부정 진술로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도가 표현되지 않고 단지 부정의 의미만으로 거절을 수행하는 방법은 성인의 대화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유아의 대화에서는 빈번하다. 이러한 응대 방식은, 미수행 의도 표명의 언어 표현이 습득되지

9) 지시화행에 대한 거절의 응대를 수행하는 기본 방법에는 상대방이 지시하는 바의 행동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도 표명, 즉 ‘미수행 의도 표명’의 방법과 행동을 수행할 수 없을을 알리는 ‘수행 불가 진술’의 방법이 있다(장경희 2002 : 553~560).

10) 이러한 거절은 어조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수행 의도 자체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일 수도 있다.¹¹⁾

의도를 표명하는 방식의 거절, 즉 미수행 의도 표명하는 거절의 방법은 유아의 응대에서 거의 보기 어렵지만, 수행 의도 표명으로 거절의 응대가 수행되는 경우는 볼 수 있다.

- (25) 엄마 : 숨지 마-.
아동 : 숨을 거야. (34개월 여아)

(25)는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지시 회행에 대한 거절 응대는 타행위 제안, 행동 수행 떠넘기기 등의 방법으로도 수행된다.

- (26) 엄마 : 목욕하고 놀아
아동 : 우리 텔레비(텔레비전) 보고 놀아요-. (36개월 여아)
(27) 엄마 : 우유 같이 먹어-.
아동 : 물! (41개월 여아)
(28) 엄마 : ○○이가 새로 만들어 봐-.
아동 : 엄마가 새로 만드어바(만들어 봐). (28개월 여아)

(26)은 엄마의 지시와는 다른 행위인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27)에서는 물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28)에서는 엄마에게 수행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절하고 있다.

유아의 거절 응대에서 수행 불가를 나타내는 방식도 볼 수 있다.

- (29) 엄마 : 똑같이 안 그리고, 니가 생각나는 대로 그려.
아동 : 난 못 해-. (33개월 남아)

11) 오승신(1995 : 127)에서는 ‘아니야’를 상대방에 대한 거부의 태도로 보고 있다.

(29)에서 아동은 그림을 그리라는 엄마의 지시에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통해 행위 수행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안적인 행동 수행의 의도나 수행의 불가능성을 진술하는 방법 이외에도 수락 응대에서와 같이, 인지적 상태나 정서적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절 응대를 수행할 수도 있다.

2. 요구 수용 여부에 따른 응대 방법의 발달

지시에 대한 응대를 수락과 거절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수락 응대 방법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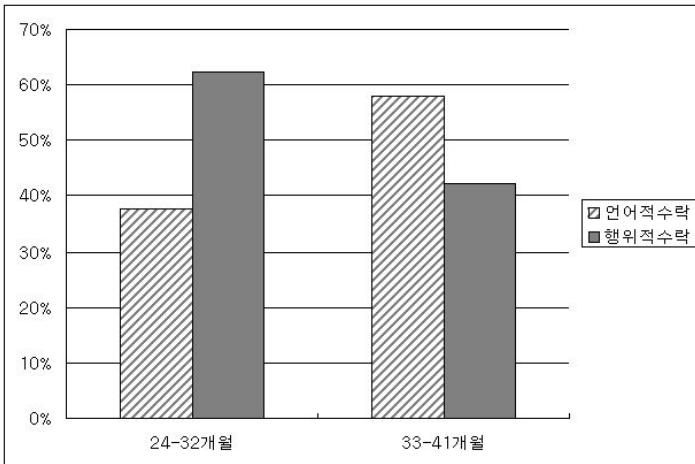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수락의 응대 방법인 언어적 응대와 행위적 응대의 월령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 수락의 응대에서 언어적 응대와 행위적 응대의 비율

개 월	언어적 수락		행위적 수락		합 계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24	0	0%	9	100%	9
A25	1	33%	2	67%	3
A26	5	17%	24	83%	29
A27	6	46%	7	54%	13
A28	7	39%	11	61%	18
A29	7	64%	4	36%	11
A30	6	50%	6	50%	12
A31	7	70%	3	30%	10
A32	1	20%	4	80%	5
A33	18	82%	4	18%	22
A34	12	52%	11	48%	23

개 월	언어적 수락		행위적 수락		합 계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35	27	64%	15	36%	42
A36	14	52%	13	48%	27
A37	9	64%	5	36%	14
A38	10	53%	9	47%	19
A39	12	52%	11	48%	23
A40	13	52%	12	48%	25
A41	7	50%	7	50%	14
총합계	162	51%	157	49%	319

<표 8>에 의하면,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언어적 수락은 점차 증가하고, 행위적 수락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24~32개월 집단과 33~41개월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그림 4> 월령 집단별 언어적 수락과 행위적 수락의 비율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24~32개월 아동들의 자료에서는 언어적 수락은 38%에 그치고, 행위적 수락이 62%에 달했다. 반면, 33~41개월 아동들의 자료에서는 언어적 수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크게 높아졌다.

2) 거절 응대 방법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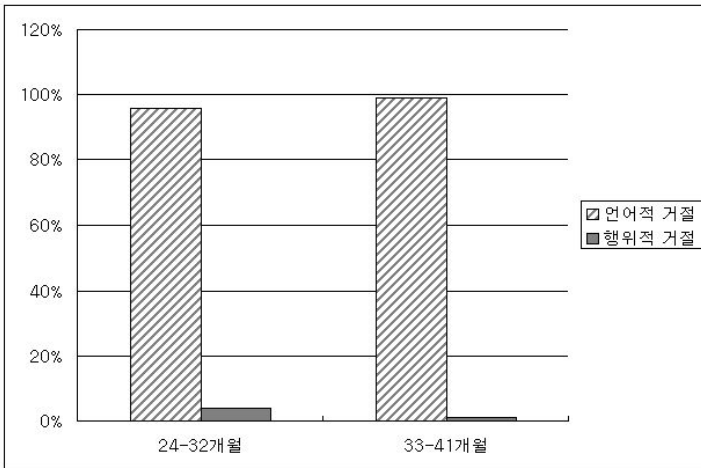
다음은 거절 응대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거절도 수락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거절과 행위적 거절로 구분하여 월령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거절의 응대에서 언어적 응대와 행위적 응대 비율

개 월	언어적 거절		행위적 거절		합 계
	출현빈도	백분율	출현빈도	백분율	
A24	12	92%	1	8%	13
A25	18	100%	0	0%	18
A26	9	100%	0	0%	9
A27	11	79%	3	21%	14
A28	6	100%	0	0%	6
A29	12	100%	0	0%	12
A30	12	92%	1	8%	13
A31	19	100%	0	0%	19
A32	10	100%	0	0%	10
A33	12	100%	0	0%	12
A34	14	100%	0	0%	14
A35	24	96%	1	4%	25
A36	11	100%	0	0%	11
A37	11	100%	0	0%	11
A38	17	100%	0	0%	17
A39	15	100%	0	0%	15
A40	21	95%	1	5%	22
A41	12	100%	0	0%	12
총합계	246	97%	7	3%	253

<표 9>를 보면, 언어적 거절은 27개월에 79%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월령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위적 거절은 27개월에 21%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월령에서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즉 모든 월령에서 언어적 거절이 행위적 거절에 비해 월

등히 높은 비율로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24-32개월 집단과 33개월-41개월 집단의 언어적 거절과 행위적 거절의 출현 양상을 정리해 보 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월령 집단별 언어적 거절과 행위적 거절의 비율

거절 응대에서는 수락 응대에 비해 언어적 거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행위적 거절이 차지한 비율은 24~32개월 아동 집단에서는 4%였고, 33~41개월의 아동 집단에서는 1%로 더 낮아졌다.

IV. 관점에 따른 응대 방법과 그 발달

1. 관점에 따른 응대 수행의 방법

지시 화자의 지시 화행이나 수행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태이다. 인간의 활동을 크게 구분할 때 행

위적 관점, 인지적 관점, 정서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시에 대한 응대 화자의 대처 방식도 이러한 세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¹²⁾ 지시 화행이 요구하는 행동 수행에 초점을 두는 행위적 관점이 응대를 할 수도, 응대 화자 자신의 인지적 상태나 판단에 초점을 두는 응대, 응대 화자의 정서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는 응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유아의 응대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른 응대 방법들을 볼 수 있다.

1) 행위적 관점의 응대 수행 방법

행위적 관점의 응대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 수행성에 초점을 두는 응대 방식이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응대 방식 가운데 행동을 직접 수행하는 응대 방법, 행동 수행의 의도를 표명하는 방법 등이 행위적 관점의 응대이다.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지시 화행에 대한 응대에서는, 행위적 관점의 응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응대이며 직접적인 응대이다. 수락과 거절의 응대가 수행 의도 표명, 미수행 의도 표명 등의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유아의 24~41개월 언어에서는 거절의 경우는 의도 표명 방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부정법으로 거절의 응대가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0) 엄마 : ○○야, ○○이가 엄마 얘기 해줘.

아동 : 아니야. (24개월 여아)

인지적 관점의 응대나 정서적 관점의 응대는 간접적인 응대이며 확대 해석을 통하여 수락이나 거절의 응대를 수행한다.

12) 지시에 대한 응대뿐만 아니라 진술에 대한 응대, 청유에 대한 응대 등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른 응대 방법들이 존재한다.

2) 인지적 관점의 응대 수행 방법

인지적 관점의 응대는 상대방의 지시에 대하여 응대 화자가 인지적 상태나 판단을 알리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응대를 말한다.

(31) 엄마 : 잠 많이 자면 토끼 안 돼. 똥땡이 돼. 빨리 깨워.

아동 : 알았어. (33개월 여아)

(32) 엄마 : ((-)) 좀 만들어 봐-

아동 : ((브찌쭈)) 모-야(몰라). (33개월 남아)

(31)에서는 ‘알았어’, (32)에서는 ‘몰라’로 응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의 응대는 지시 화자가 요구하는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인지적 상태와 관련하여 응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음을 뜻하는 ‘알았어’는 수락의 응대로 해석되고, 지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몰라’는 거절의 응대로 해석된다.

다음 (33)에서는 ‘안돼.’로 응대가 수행되고 있는데, ‘안돼’는 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절의 응대를 수행하고 있다.

(33) 엄마 : 음. 밥 먹자.

아동 : 안돼. (32개월 남아)

이와 같이 유아들이 자신의 인지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수락이나 거절의 응대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정서적 관점의 응대 수행 방법

지시 내용에 대하여 응대 화자는 기쁨이나 호감 등의 적극적인 정서를 지닐 수도 있고, 기분 나쁨이나 싫음 등의 소극적 정서를 지닐 수도 있다. 적극적인 정서를 나타냄으로써 수락의 응대를 소극적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절의 응대가 수행된다.

유아의 언어에서도 (34)~(35)와 같이 소극적 정서인 ‘싫어.’를 표명함

<표 11> ‘-큰 거야’의 출현 분포

개월 아동	33	34	39	41	합계
E	1	1		2	4
F		2			2
G		1	1		2
총합계	1	4	1	2	8

<표 10>과 <표 11>에 의하면 ‘올래’와 ‘큰거야’는 A아동이 24개월에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33개월 이후에 출현하고 있어 비교적 월령이 높은 아동에게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인지적 관점의 응대 방법의 발달

‘알았어, 몰라, 안 돼’ 등으로 대표되는 인지적 관점의 응대 방법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료에 나타난 인지적 관점의 수락 응대인 ‘알았어’의 월령별 출현 분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알았어’의 출현 분포

개월 아동	33	34	35	38	39	40	41	합계
E					1			1
F	2	2	6			1	1	12
G	1	1				2		4
H			1	1	1			7
총합계	3	3	7	1	2	3	1	24

<표 12>에 의하면, ‘알았어’로 수행되는 응대는 24~32개월 관찰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33~41개월의 관찰 집단에서만 볼 수 있었다.

인지적 관점의 거절 응대인 ‘몰라’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13> ‘몰라’의 출현 분포

개월 \ 아동	33	37	40	합계
C	1			1
F			1	1
G		1		1
합계	1	1	1	3

‘몰라’는 자료에서 총 3회 나타나 24회의 ‘알았어’에 비해 출현 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다. ‘몰라’도 ‘알았어’와 마찬가지로 33~41개월의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만 출현하고 있었다.

다음은 ‘안 돼’와 ‘-야 돼’의 출현 분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안 돼’의 출현 분포

개월 \ 아동	32	33	34	35	36	37	39	40	41	합계
E						1		1		2
F		1	1							2
G	1		1	1	1				1	5
H				2			2		2	6
합계	1	1	2	3	1	1	2	1	3	18

<표 15> ‘-야 돼’의 출현 분포

개월 \ 아동	32	35	39	합계
E	1			1
H		1	2	3
총합계	1	1	2	4

‘안 돼’와 ‘-야 돼’는 32개월 이후에 관찰되었다. ‘안 돼’는 32개월 이

후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데 반해 ‘-야 돼’는 총 3회 사용되고 있다.

3) 정서적 관점의 응대 방법의 발달

정서적 관점의 응대는 수락 응대와 거절의 응대가 출현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다. 거절의 응대를 수행하는 ‘싫어’의 출현 시기가 수락의 응대를 수행하는 ‘좋아’에 비해 빠르다.

<표 16> ‘싫어’의 출현 분포

개월 이동	27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합계
A	2	3	1	5	2									13
B			3		3			1						7
C						1								1
E													1	1
F					2		1	1						4
G						5	1		1		3	2	1	13
H								6		2	1	1	1	17
총합계	2	3	4	5	7	6	2	8	1	2	4	3	3	56

<표 16>에서 보듯이, ‘싫어’는 27개월(2회)부터 출현하고, 28개월(3회), 29개월(4회), 30개월(5회), 31개월(5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출현을 보인다. 따라서 소극적 정서 표현의 거절 응대는 30개월 이전에 습득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적극적 정서를 표출하는 수락의 응대 방법으로, ‘좋아’는 전 파일 가운데, 39개월에서 단 한번만 쓰이고 있다. 정서적 관점의 응대에서 수락의 응대 방법은 거절보다 늦게 습득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유치원 단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초등학생의 1~6학년 단계에서도 ‘좋아’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¹³⁾ 정서적 관점의 수락 응대 방법은

13) 유치원 단계에서는 김정선·장경희(2008)에서 적극적 정서적 관점 표현의 수락 응대

뒤늦게 발달한다고 본다.

응대의 관점에 따른 응대 방법 가운데, 행위적 관점의 응대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4개월에서 26개월 사이부터 출현하기 시작해 거의 모든 개월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지적 관점의 응대는 33개월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인지적 관점의 응대가 언어 능력이 보다 발달된 단계에야 습득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24~43개월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시화행에 대한 응대 방법과 발달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시 화행과의 상호작용의 정도, 상대방 요구의 수용 여부, 응대에서 유아들이 취하는 관점 등에 따라 유아의 응대 방법들을 유형화하였다. 유아의 지시 화행에 대한 응대 방법은 상호작용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호작용적 응대, 준상호작용적 응대, 비상호작용적 응대로 구분하였고,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서는 수락의 응대와 거절의 응대로 구분하였으며, 응대의 관점에 따라서는 행위적 응대와, 인지적 응대, 정서적 응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응대 유형별로 응대 수행의 방법들을 살펴보고 유아의 응대 방법이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성의 정도에 따라 유아의 응대 화행을 관찰한 결과, 준상호작용 응대와 비상호작용적 응대가 성인에 비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월령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 상호작용적 응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수락과 거절로 나누어 유아의 응대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수락 응대에서는 행위 묘사, 결과 묘사

등이 유아의 특징적인 응대 방법으로 나타났다. 거절 응대에서는 미수행 의도의 표명 없이 부정법으로 거절을 수행하는 점 등에서 성인과 차이를 보였다. 수락과 거절 모두에서 월령이 증가할수록 행위적 수락에 비해 언어적 수락의 비율이 높아졌다.

선행 지시에 대한 응대자의 관점에 따라서 보면, 유아의 응대에서는 행동 수행에 초점을 두는 행위적 관점의 응대는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반면, 자신의 인지적 상태나 판단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관점의 응대는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서적 관점의 응대의 경우, 거절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반면에 수락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 본 논문은 2008. 10. 31. 투고되었으며, 2008. 11. 6.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정선·장경희(2008), “유치원 아동의 요구 화행에 대한 응대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5, 27~49.
- 박휴용(1994), 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오승신(1995), 국어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1996), 요청의 상호행위 현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1984), 어머니와 유아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4, 5세 유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진 외 옮김(2001),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 장경희(2000), “청유 화행에 대한 수락과 거절”, 『텍스트언어학』 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11~143.
- 장경희(2002), “국어의 지시 화행에 대한 응대 수행의 방법”, 『문법과 텍스트』, 537~571, 서울대 출판부.
- 장경희(2005), “국어 지시 화행의 유형과 방법 및 지시 강도”, 『텍스트언어학』 19, 185~208,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장경희·김정선(2003), 유아의 요구 화행 수행 능력의 발달 단계, 『한국어 교육』 14-2, 327~36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홍육자(1974), 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의 언어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초록>

지시 화행에 대한 유아의 응대 방법

장경희

본 연구는 지시 화행에 대한 유아들의 응대 방법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이 된 아동들은 관찰 초기에 생후 24~34개월이었던 8명의 정상 발달 유아들이다. 지시 화행에 대한 응대 방법을 상호작용성의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적 응대, 준상호작용적 응대, 비상호작용적 응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이 유아 발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준상호작용적 응대와 비상호작용적 응대가 성인에 비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 상호작용적 응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수락과 거절로 나누어 유아의 응대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수락 응대에서는 행위 묘사, 결과 묘사 등이 유아의 특징적인 응대 방법으로 나타났다. 거절 응대에서는 ‘- 아니야.’ 등의 부정법으로 거절을 수행하는 점 등에서 성인과 차이를 보였다. 선행 지시에 대한 응대자의 관점에 따라서 보면, 유아의 응대 대부분이 행동 수행에 초점을 두는 행위적 관점의 응대에 속했고, 자신의 인지적 상태나 판단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관점의 응대는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서적 관점의 응대의 경우, 거절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반면에 수락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어】 응대, 화행, 언어 발달, 아동 언어, 요구, 상호작용

<Abstract>

Communicative Response to Demand in Child Language

Chang, Kyung-hee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styles of child response to demand and find out if there are any characteristics in child response. Subjects were 8 normal children who were 24-34 months of age at the time of first assessment. We classified response styl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action-interactional response, semi-interactional response, non-interactional response. Analysis of response styles showed that semi-interactional response and non-interactional response are common in young children's utterances. Interactional response increased with the growth of age. And response styles can be classified as acceptance and refusal whether the speaker accept the demand or not. Regarding acceptance, it was observed that children often use unique style. For example, some children describe their own conduct, or describe the result of their having performed the demand. With regard to refusal, young children show high percentage of negative sentences such as 'It's not -.'. We can also classify response styles as behavioral response, perceptual response and emotional response according to the speaker's point. The whole young children focused on behavior when they receive the demand. And as they grow in months, the focus has shifted to perception. The emotional response was found frequently in acceptance but was hardly found in refusal.

【Key words】 response, speech act, language development, child language, demand, interaction